



# 해외양돈뉴스



## ✧일본

### 돈육 가격 국산 상승하고, 수입 하락 소비자 품질 우선 이유

일본 돼지고기 시장에서 수입산과 국내산의 가격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일본 농림수산성에 따르면 지난해 4~11월 대형소매점에서 판매된 냉장 돼지고기 평균가격은 100g 기준 250엔으로 일년전보다 1.6%가 올랐다. 반면 수입품은 169엔으로 전년 동기대비 1.2%가 하락, 가격 차이가 더 커졌다는 것이다.

이는 품질이 우수한 국내산 돈육을 선호하는 경향이 점차 강화되고 있기 때문으로 이 같은 추세가 지난 03년 이후 지속되고 있다고 농수성은 분석했다. 또한 최근 농축산진흥기구 설문조사에서 대형소매점이 국산 돼지고기의 취급을 늘릴 것이란 답변이 압도적으로 많아 앞으로 국내산 돼지고기 가격 강세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 ✧미국

### 1월 돈육 생산 1백만톤... 사상 최고

미국의 1월 돼지고기 생산량이 사상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최근 미국 육류수출입협회에 따르면 1월 돼지고기 생산량은 98만톤으로 전달 89만톤보다 10%, 지난해 같은 기간 86만2천톤 대비 13.6%가 각각 증가했다.

도축두수는 1천60만마리로 전월과 07년 1월에 견줘 각각 9.4%, 13.1%가 많았다. 이에따라 1월 돼지 가격은 100kg 기준 68달러로 전달에 비해 6.2%, 지난해 동월 대비 22.7%가 각각 떨어졌다.

### 돼지유래 사람감염 새로운 질병 - PIN

지난해 미네소타 도축육가공 공장의 11명이 감염되었던 질병이 미국의 질병 통제 및 예방 센터(CDC)에 의해 신경성 진행성 염증(PIN)으로 PIN은 돼지 뇌의 일부를 흡입할 때 발병하는 것으로 보인다. 작년 미네소타에서 발견되었던 PIN 감염증상은 팔과 다리의 감각상실, 피로와 얼얼한 느낌을 주는 것이다. 그 이후 인디애나주 소재 도축가공장등에서도 발견되었다.

당국자는 10여년전에 도축장에 도입되었던 컴프렛 셔로 돼지의 뇌를 제거하는 설비가 뇌를 공기중에 살포시킨 결과 근무자들이 흡입한 것으로 추정하고 동설비를 모두 철수 시켰다.

### 반등하는 미국 돈가, 그러나 두당 29달러 적자

미국의 돈가가 지난 1월초 생돈 100파운드당 35달러대의 바닥을 찍고 반등하기 시작해 2월 중순 현재 40달러대로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작년 최저가를 보였던 11월 이후 미국의 양돈농가는 비육돈 출하두수당 29달러씩(약 2만7천원) 적자를 보고 있다(아이오와 주립대 자료).

12월 1일자 미국의 돼지두수가 전년비 4.2%나 많아서 공급두수가 많기 때문이다. 금년 들어 2월 중순까지 매주 도축두수가 220만두대를 유지해 전년 동기비 10%이상 더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여기저기에서 모돈두수가 감소하고 있다는 조짐이 보이고 있다. 지난 1월간의 모돈 도축 두수가 3.2% 더 늘었고, 대규모농장들이 모돈을 팔아 치우기 시작했다는 정보가 나돌고 있다.

그러나 이미 임신한 모돈을 감안한다면 2008년도 출하두수는 전년비 4%나 증가해 연중평균가격은 생돈 파운드당 40달러 중반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예상되는 평균 생산비 50달러 중반 보다 판매가격이 미치지 못

해 올해 미국양돈산업은 적자 경영이 불가피하다.

## ✧ 덴마크

### 비육돈 두당 4만원씩 손해

덴마크의 농업전문가는 덴마크 양돈농가는 저가의 도체, 전년보다 40~60% 상승한 사료비 때문에 비육돈 1두 출하시마다 200~240크로네(3만7천원~4만4,400원)씩, 자돈출하 농가는 40~50크로네(7천4백원~9천250원)씩 손실을 보고 있다고 했다. 만일 돈가가 지금 상태로 간다면 연간 양돈업계 많게는 50억크로네(9,250억원)의 손실이 불가피하다고 했다.

한편, DS는 연간보고서에서 2003년이후 2008년까지의 추정 양돈산업 누적손실을 87억크로네(1조6,095억원)로 이 기간 중 2006년만 흑자를 보았다고 했다. 양돈농가는 계속되는 적자에도 불구하고 부동산가치의 상승 때문에 실제적자를 느끼지 못할 따름이라고 했다.

## ✧ E U

### EU 양돈업 성장 '뒷걸음' 예상

올해 유럽연합(EU) 양돈산업의 성장이 '뒷걸음' 질할 것으로 예상됐다.

최근 영국 식육가축위원회는 올해 EU 27개국의 돼지고기 수급 예측을 통해 수입량은 증가하는 반면 생산, 소비, 수출은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올해 돼지고기 생산량은 2천236만6천톤으로 07년보다 0.5% 가량 줄고 특히 벨기에와 폴란드는 각각 3.9%, 3.1%가 줄어 비교적 감소폭이 클 것으로 위원회는 내다봤다. 또한 소비는 2천96만톤으로 07년에 견줘 0.4%가, 수출은 143만톤으로 작년에 비해 1.4%가 각각 줄 것으로 전망됐다.

반면 수입량은 2만1천톤으로 일년전보다 5%, 06년에 비해서는 31% 가량 많을 것으로 추산됐다. 이 같은 원인은 지육가격 하락과 사료 가격 상승에 따른 양돈

경영 악화 영향으로 풀이되고 있다.

## ✧ 세 계

### 세계 양돈업은 모든 감축 중

세계 양돈업계가 몸집 줄이기에 나섰다. 계속되는 고곡물가로 사료 가격이 급등하고 있는데다 돈가 약세로 양돈 수익성이 악화된 때문으로 모든 감축을 통해 규모를 줄여나가고 있는 것이다.

유럽연합(EU)의 경우 지난해 11월 중순 기준 3개월간 번식용 돼지 도축두수가 61만4천600마리로 일년전에 비해 5.3%가 늘었다. 이는 돈가 하락에다 최근 1년 사이 40~60% 가량 급격히 상승한 사료비 때문으로 특히 EU의 경우 미국에 비해 고유료화 영향으로 수출이 침체되면서 더 큰 타격을 받았다.

돈육 수출이 사상 최고를 기록한 미국도 다르지 않다. 지난해 11월에 이어 올해 1월 돈가가 사상 최저치를 형성하면서 미국의 양돈농가들은 비육돈 출하두당 약 29달러(2만7천원)가량의 적자를 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미국은 수출이 크게 늘었음에도 공급물량이 증가한 것이 돈가 하락의 주요인으로 꼽히고 있어 모든 감축을 유발하고 있는 것. 세계 최대 양돈업체인 스미스 필드사가 최근 양돈경영환경 악화로 모든 4~5%인 4만~5만두를 줄인다고 발표했다. 또한 이미 지난 1월 미국의 모든 도축두수가 전년보다 3.2%가 증가한 것을 비롯해 모든을 처분하는 농장이 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돼지고기 생산량은 08년까지 전년대비 소폭 증가하나 양돈 수익성 악화로 11년까지 감소할 것으로 농무성 경제조사국은 내다봤다.

우리나라 역시 그동안 꾸준히 증가세를 보이던 모든수가 지난해 9월부터 감소세로 돌아섰다. 농촌경제연구원은 최근 양돈전망을 통해 돼지 값 하락과 사료가격 상승으로 양돈 수익이 떨어지면서 모든수가 줄고 있다고 진단하고 3월과 6월 돼지 사육두수가 각각 943만두, 939만두로 2분기 연속 전분기 대비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양돈**